▲최동열 회원

두 바퀴로 씽~씽 건강 인생 쑥~쑥

▲매달 한차례씩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자출사 동호인들.

▲ 박석균 회원

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

광주·전남 600여 회원들 도심의 환경 파수꾼 역할도

교통체증으로 차속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아침 출근길. 아무리 맘이 급해도 꽉막힌 차량흐름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누구나 한번쯤은 '걷거나, 자전거로 출근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떠올려 봤을 것이다. 더욱이 요즘처럼 기름값이 껑충 뛰게 되면 출·퇴근 수단에 대한 '대안'은 절실해진다.

동호회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하 자출사)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몸소 실천하는 이들의 모임이다.

회원 박석균(36·광주여고 교사)씨는 2년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용봉동 자택에서 출발해 광주역을 거쳐 학교까지 6㎞ 구간에 걸리는 시간은 15~20여분. 자동차와 오토바이 마니아였던 박씨는 결혼과 함께 승용차를 팔고 출근수단을 자전거로 바꿨다. 비가 오는 날은 동료 교사들과 카풀을 하거나 버스를 이용한다.

박씨는 "결혼하며 한집에 승용차 2대가 있을 필요가 없고, 건강과 시간적·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윤리 과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지키자는 환경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동열(32·조선대병원 레지던트)씨 역시 진월동 집에서 병원까지 2년째 줄곧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다. 한때 80㎏까지 살이 쪘다가 어렵사리 65㎏으로 감량한 최씨는 바쁜 일과속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대신 20여분의 꾸준한 자전거 출·퇴근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출·퇴근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자출사' 광주·전남지역 회원들은 20~50대 600여명. 이중 150명 정도가 온라인 카페와 오프라인을 병행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동호회는 월 1회 정기모임을 비롯해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자가 정비능력을 키우는 정비모임, 회원친목을 위한 수다모임, '먹·번'(먹거리 번개모임) 등을 수시로 갖고 있다.

회원들이 타는 자전거는 30~50만원대가 주를 이루며 점차 '자신의 몸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출·퇴근용으로는 지나치게 고급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조언이다.

동호회는 환경운동연합과 공조해 '자전거로 이산화탄소(CO2) 다이어트'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9일에는 '제 6회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매연을 내뿜는 차량대신 자전거로 선두그룹을 이끄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란천사'라는 프로젝트팀을 조직해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자전거 고장 등 긴급상황에 처한 동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동호인들은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로(車路) 다이어트를 통해 차도와 인도사이에 독립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비롯해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 실시 ▲직장마다 간단한 샤워시설 설치 ▲자전거 관련제품 세금감면 등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보도에 선만 그어놓은 형식적인 자전거 전용도로는 인도와 차도간 턱이 높아 자전거 바퀴가 휘기 쉽고, 노상 적치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오히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렇다고 도로로 내려서 달리면 이물질이 타이어에 박혀 펑크가 쉽게 나는데다 택시 등 차량이 거칠게 밀어붙여 생명을 위협받기도 한다는 부연 설명이다.

첨단에서 양산동까지 8㎞거리(15분 소요)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 박동수(38·로하스부페 실장)씨는 "자전거는 내 스스로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만큼만 가고, 일에 찌든 생활에서 자전거를 타며 유일하게 땀 흘리는 시간이 매력적"이라며 자전거 예찬론을 폈다.

동호회 카페 첫머리에 적혀있는 '도시의 도로는 느리고 시끄러운데다 공기도 나쁘다. 나는 이러한 도시에 자전거가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갈 수 있는 내일이 되기를…'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동호회 운영진(스탭)을 맡고 있는 조민구(28)씨는 "환경을 위해,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즐겁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카페(cafe.naver.com/bikecity)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자전거 출퇴근 이렇게

▲어디로 달릴 것인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되고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와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면 자전거의 과실이 되므로 언제라도 정지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힌다.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 버스뒤에 매연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간격을 두고 기다렸다가 지나간다. 차도에서는 수신호와 눈맞춤을 아끼지 않는다.

▲신호등은 지켜야 하는가= 항상 지키는 것이 좋다. 비교적 한산한 곳은 신호보다는 교통상황을 보고 적절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명심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우회전 차량에 유의= 차량이 우회전할 수 있는 골목길에서는 반드시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한다. 왼쪽옆에서 직진하던 차량들이 갑자기 우회전할 수도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주·정차 차량과 신호대기 차량에 유의= 불법 주·정차 차량 옆을 지나갈 때는 50cm~1m 정도 옆으로 지나간다. 주·정차해 있던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거나 운전석 문이 덜컥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반드시 고개를 뒤로 돌려서 뒤에서 오는 차량들에게 자신이 진로를 변경하려 한다는 사인을 주어야 한다.